

인도의 계층별·지역별 소비지출 격차 심화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작성일: 2014년 3월 25일

■ 인도 통계청은 지난 2월 2011.7월~2012.6월 기간 동안 7,469개의 농촌 마을과 5,268개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10만개의 가계를 대상으로 월평균 1인당소비지출(MPCE: Monthly Per Capita Consumer Expenditure)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도농간 및 지역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됨.

- 2011-12년의 평균 MPCE가 농촌은 1,430루피인 것에 반해, 도시는 2,630루피로 도시가 농촌보다 84%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인구의 최하위 5%는 월평균 521루피를 지출하는 것에 반해, 도시인구의 최하위 5%는 월평균 700루피를 지출하였음.
- 이에 반해 인도 농촌의 상위 5%는 월평균 4,481루피를 지출하여 최하위 5%보다 무려 8.6배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며, 도시 상위 5%의 소비지출은 10,282 루피로 도시 하위 5%보다 14.7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인도의 도·농간의 격차는 물론 계층별 소비지출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지출 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

5% 지출 분위	농촌 (루피)	도시 (루피)
0-5%	521.44	700.50
5-10%	665.84	908.92
10-20%	783.24	1,118.09
20-30%	904.57	1,362.69
30-40%	1017.8	1,624.86
40-50%	1,135.97	1,887.65
50-60%	1,266.08	2,180.52
60-70%	1,426.76	2,547.94
70-80%	1,645.36	3,062.85
80-90%	2,007.46	3,892.60
90-95%	2,556.33	5,350.06
95-100%	4,481.18	10,281.84
전체평균	1,429.96	2,629.65

자료: National Sample Survey Office, 2014, Level and Pattern of Consumer Expenditure 2011-12,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p.17.

■ **주요 주별 소비지출을 보면, 농촌지역의 월평균 소비지출도 약 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별 월평균 지출에서는 케랄라가 2,669루피로 가장 높은 반면 오리사와 자르칸트가 약 1,000루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나타내고 있는 주는 편잡(2,345루피), 하리아나(2,176루피)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주는 차띠스가르(1,030루피), 비하르(1,127), 마디아 프라데쉬(1,152), 우따르 프라데시(1,156) 등으로 나타남.

표 2 주요 주별 월평균 소비지출

5% 지출 분위	농촌 (루피)	도시 (루피)
Andhra Pradesh	1,754	2,685
Assam	1,219	2,189
Bihar	1,127	1,507
Chhattisgarh	1,027	1,868
Gujarat	1,536	2,581
Haryana	2,176	3,817
Jharkhand	1,006	2,018
Kernataka	1,561	3,026
Kerala	2,669	3,408
Madhya Pradesh	1,152	2,058
Maharashtra	1,619	3,189
Odissa	1,003	1,941
Punjab	2,345	2,794
Rajasthan	1,598	2,442
Tami Nadu	1,693	2,622
Uttar Pradesh	1,156	2,051
West Bengal	1,291	2,591
인도전체 평균	1,430	2,630

자료: National Sample Survey Office, 2014, Level and Pattern of Consumer Expenditure 2011-12,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p.18.

■ **주별·도시별 월평균 소비지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하는 주와 가장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하는 주간 격차는 2.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하리아나가 3,817루피로 가장 높고, 비하르가 1,507루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소비지출이 높은 주는 케랄라(3,408루피), 마하라슈트라(3,189루피)이며, 소득이 가장 낮은 주는 차띠스가르(1,868루피), 오디사(1,941루피)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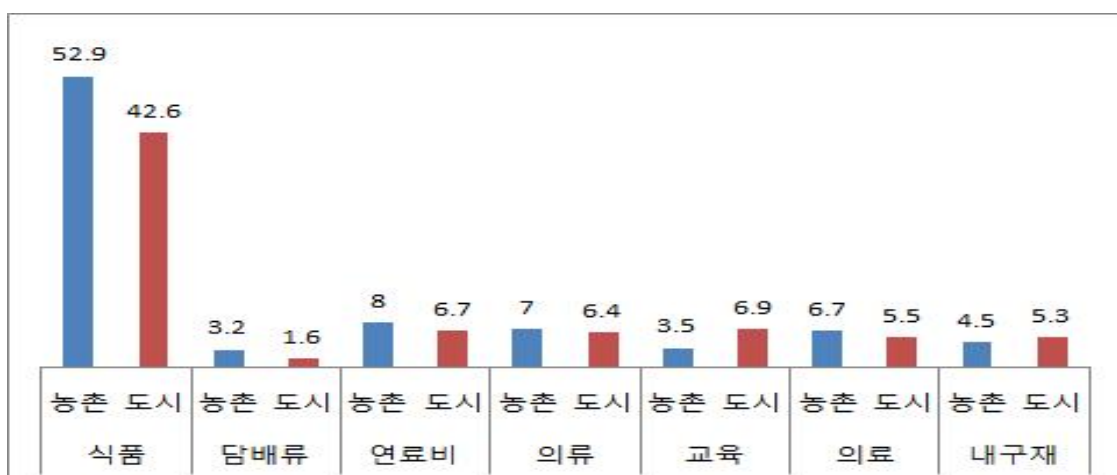
■ **주별 도농간 격차는 농촌에 비해 도시의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됨.**

- 주별 도농간 격차를 보면, 편잡이 도시월평균 소비지출이 농촌보다 19% 높고, 케랄라가 28%로 높으며, 비하르가 34%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도시에서는 자르칸트와 마하라슈트라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임.
- 더욱이 1993-94년에서 2011-12년 기간 동안에 농촌의 소비지출은 36~38% 증가한 반면 도시의 소비지출은 5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보다는 도시가 더 빠르게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인도의 월평균 소비지출의 형태를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은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식품 소비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는 전체 소비 중에서 42.6%를, 그리고 농촌은 52.9%를 식품소비에 지출하여, 식품소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매우 높으면서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식품에 대한 소비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더욱이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이 농촌과 도시간에 거의 두 배 정도의 지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농촌과 도시간에 생활수준이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도농간 월평균 소비지출 형태(%)



자료: National Sample Survey Office, 2014, Level and Pattern of Consumer Expenditure 2011-12,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p.24.

■ **더욱이 로렌츠 비율로 나타낸 소비지출에 대한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것**

으로 조사됨.

- 로렌즈 비율로 소비지출의 불균형을 보면, 농촌간에는 0.297~0.307로 나타난 반면 도시간에는 0.373~0.385로 농촌과 도시간에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더불어 주별·도농간 격차를 보면, 그 비율이 농촌은 0.19~0.36, 그리고 도시는 0.21~0.41로 매우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 보면, 인도에서 소비지출이 도시와 농촌, 그리고 주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소비지출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보다는 도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증가속도 면에서도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 형태에서도 인도는 여전히 식품 소비에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여전히 인도는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더욱이 교육지출에서 절대적으로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도시와 농촌간의 소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우리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에서 소비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진출 전략이 요구됨.

- 인도의 소비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들은 텔리를 중심으로 한 하리아나, 펀잡 주들이거나, 남부의 케랄라, 타밀나두 등으로 조사된 반면, 소비지출이 가장 적은 주는 벵갈지역의 주와 대륙 중앙에 위치한 주들로 나타남.
- 특히 아직 농촌의 소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도시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촌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판매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즉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대인도 진출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